

# Open Doors

2020. 03. Vol. 215

박해와 선교현장

스리랑카 *Sri Lanka*

사순절 특집

God In Our Grief



“한국오픈도어선교회”로 검색



OpenDoors

Serving persecuted Christians worldwide



## 주의 뜻과 마음

한국오픈도어 사무총장 정규일 목사

산다는 것, 삶의 의미와 가치는 무엇일까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진정 역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는 주의 뜻과 마음을 알고, 그 뜻을 좇아가는데 있습니다. 많은 일로 분주하고 피곤하여도 그분의 뜻과 마음 안에 머물지 않으면 열매는, 즉 가치와 의미는 없는 것입니다(요15:5).

지난 10년 동안 세계 교회를 향한 박해의 증가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상당한 기세와 다양한 형태로 그리스도인에 대한 적대심이 높아졌습니다. 한국교회가 볼 수 없는 저 곳, 2억 6천만 여명의 주의 자녀들은 깨어지는 아픔을 안고 있습니다. 국제 오픈도어의 글로벌 전략 팀(GSP)의 추정에 의하면, 최소 향후 5년 동안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놀랄 일은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특히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서) 박해는 건강함을 나타내는 지표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한 세상의 위협은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복음의 확장 이면에는 이중성, 박해와 기회가 공존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친밀히 걸었고, 세상은 교회를 미워했습니다. 적대감이 커질수록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위협과 박해는 하나님의 기회가 되어서 복음의 역사를 진척시키셨습니다.

이러한 흐름과 경향 가운데,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특히 박해의 한 가운데서 시름하는 사람들을 기

억해 봅니다. 아프리카 우간다의 당시 14살의 수잔(Susan)을 떠올려 봅니다. 무슬림 가정에서 그리스도가 구원자임을 발견하고 소녀는 개종했습니다. 아버지는 딸을 작은 방에 감금했습니다. 오빠는 아버지 몰래 땅을 파고 작은 구멍을 만들었습니다. 오빠는 이 작은 구멍으로 바나나 조금과 몇 모금의 물을 주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 오빠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감금한문이 열렸습니다. 수잔은 말하거나 걸을 수 없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노랗게 변했고, 손톱은 길었으며 눈은 가라앉았습니다. 당시 몸무게는 20kg 정도 보였다고 합니다. 걸을 수 없게 되었지만, 주를 부인하거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 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전12:26,27).

하나님께서 한국 땅과 한국교회에 풍요와 자유, 그리고 성장과 발전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한 때 뉴욕타임지는 세계 50대 교회 중에서 22개가 한국교회라고 발표했습니다. 지금 그 교세와 성장이 둔화되긴 하였지만, 60여 개국에서 신음하는 2억 6천만 명의 그리스도인에 비하면, 우리 삶의 질은 너무나 비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저 땅의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한 몸으로 한 형제, 자매로 보십니다. 물론실 지도 모르겠습니다. 너희에게 주어진 풍요와 자유는 누구의 것인지? 말입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해주십시오. 박해받는 교회와 함께해 주십시오!

# CONTENTS



04



06



10



16

- 04** 북한 선교 현장  
나의 출애굽기(21)
- 06** 박해와 선교 현장  
스리랑카 (Sri Lanka)
- 10** 사순절특집  
부활절테러 희생자 가족에게 듣다.
- 16** 오픈도어 방문사역 보고  
Presence Ministry
- 20** 뉴스와 업데이트
- 22** 후원자 스토리  
오픈도어와 함께한 13년
- 23** 오픈도어 후원 캠페인  
알림광고

OpenDoors 2020년 03월호 | 통권 215호 | 등록번호-성북 라 00066

공동대표 \_김성태 교수(국제관계), 신현필 목사(개발사역)  
 이사장 \_김성태 교수  
 부이사장 \_김명재, 김영복 목사  
 이사회 \_서창원, 노창영, 김영우, 최홍규, 김성곤, 박운환,  
 이동현, 배춘섭, 김윤태, 윤상덕, 안창호 이사  
 사무총장 \_정규일 목사  
 정보/행정/재정/홍보 \_최임경, 김영신, 문민환, 박미선 간사  
 북한선교 \_제나, 이다니엘, 레아, 수지, 제시카, 노을, 요한 간사  
 발행처 \_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857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9길 10 영성빌딩 4층  
 Tel. (02) 596-3171 / Fax. (02) 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편집 및 디자인 \_제이앤피

〈후원계좌〉  
 라틴아메리카: KEB하나은행 630-007636-461  
 중앙아시아: 우리은행 1005-201-884969  
 중동(결프 포함): 우리은행 1005-701-884976  
 아프리카: 우리은행 1005-901-884982  
 아시아: 우리은행 1005-901-884970  
 북 한: KB국민은행 029301-04-169183  
 희망의선물: 신한은행 100-027-453994  
 오픈도어선교회: KB국민은행 029301-04-167093  
 북한 캠페인: KB 국민은행 029301-04-169183  
 어린이&청소년 캠페인: KEB 하나은행 280-890028-03905  
 여성사역 캠페인: 신한은행 100-027-219169  
 예금주: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오픈도어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잡지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나의 출애굽기 (21)

드보라

시간이 흘러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를 탈 시간이 왔다. 한국에 간다는 생각에 설레기도 했지만 난생 처음 타는 비행기를 혼자서 타려니 무서웠다. 한국 대사관 직원분은 나에게 비행기 승무원들에게 부탁드렸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며 누가 말 시킬 수 있으니 눈 감고 자는 척 하고 혹시 물어보면 ‘노’ 라고 대답하라고 일러주었다. 비행기를 타면서도 나는 비행기에 혹시 인공기라도 그려져 있으면 어떡하나 혼자 괜히 노심초사했다. 이미 여권도 대한민국 것을 받았음에도 말이다. 가서 보니 다행히 대한민국 국기가 있는 비행기였다. 남들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비행기에서 남한 땅을 보니 십자가도 보이고 빛이 반짝반짝했다. ‘남조선 정말 좋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탈북자다 했더니 승무원들이 나를 데리고 일반 승객들과는 다른 곳으로 안내해주었다. 그곳에는 국정원 요원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나는 그 차로 바로 이동했다. 차를 타니 국정원 관계자는 나를 반갑게 맞이해주었다.

국정원에서는 여러가지 조사를 받아야 했다. 적어도 약 80페이지 가량을 자기에 대해 써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진짜 북한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해 어린시절부터 쭉 자기 이야기를 쓰고 가족 사항도 써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그간 중국 생활이 길어지는 통에 기억이 가물가물한 부분이 많았다. 가족 생일은 알겠는데 년도가 헛갈렸다. 정보가 구체적으로 확인이 안되면 국정원에 오래 머물러 조사받아야 했다. 다만 개중에 혹시 내가 아는 사람이 있다면 내 신분을 빠르게 증명할 수 있어서 조사를 단축할 수 있었다.

국정원 조사를 대기하면서 숙소 생활을 했다. 숙소에

서는 각자 자기 이름 명찰을 다 차고 다녔다. 할 일도 없고 심심한 터라 숙소를 놀러 다니면서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하는데 내 외삼촌의 딸과 똑같은 이름의 명찰을 가진 여자가 있었다. 나는 왠지 반가워서 “내 외삼촌 딸과 이름이 똑같네” 하고 말을 걸어보았다. 자연스럽게 어디서 왔는지 친척이 누구 있는지 등등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상하게 그 동네가 우리 외갓집이 있던 동네였다. 어? 어? 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니 세상애나... 이 여자가 진짜 내 외삼촌의 딸이었다. 방학 때 외삼촌 네 집에 가서 간담아기를 업기도 하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했는데 20년만에 그 아기를 만난 것이다.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우리는 서로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사촌동생은 남편하고 시댁 식구까지 다 넘어온 상황이었다. 우리 가족 중에 나 말고 한국에 온 다른 가족이 있다니 신기했다.

그 다음날이 되었다. 국정원 조사 명단에 사촌동생이 포함되었다. 이렇게 명단이 불리면 짐을 싸고 다른 숙소로 머물러야 한다. 그날 만나지 못했으면 내 신원확인이 매우 힘들었을 것이다. 그 사촌 동생이 증언을 해



줘서 나도 조사를 빨리 마칠 수 있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사람이 미리 계획을 했다고 해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라웠다. 국정원에서 우리 가족을 만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만남 뿐 아니라 어려운 조사과정도 잘 끝낼 수 있었으니 참으로 기적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국정원 조사를 마치고 하나원으로 갔다. 하나원 생활은 참 좋았다. 아침에 하나원 교회에서 하는 새벽기도에 가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참 좋았다. 하나원에서는 추후에 어디로 배치 받을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특히 서울이 경쟁이 켜졌다. 그때는 서울에 10자리가 나왔는데 33명이 지원을 했다. 결국 추첨을 거치게 되었다. 추첨을 기다리며 함께 하나원 생활을 했던 다른 탈북자들과 어떻게 배치 받을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동생뻘 되는 한 탈북자는 나에게 “그렇게 새벽부터 예수님 예수님 하는데 언니 서울 되면 나도 하나님 믿을께” 하며 응원인지 놀리는 건지 모르겠는 말투로 어쨌든 격려해주었다. 그런데 추첨이 시작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내가 서울지역에 1번으로 당첨이 된 것이다. 주변 탈북자 동료들이 많이 부러워했다. 특히 그 동생은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나보다 하며 깜짝 놀랐다.

다시금 나의 한국행을 돌이켜보면 우연이라는 말로 다 답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많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많은 증거를 찾을 수 있었다. 이러한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내 믿음을 성장시키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도록 하셨다. 물론 어떤 일이 잘

풀린 것 자체만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는 없다. 내 인생은 한편으로는 매우 어려운 일이 많았으니 어떤 이들이 보기엔 불행한 삶일 것이다. 그렇지만 그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생생하게 당신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나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낙담과 좌절이 아닌 소망을 품게 하셨다. 그 역사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하게 한다. 한편 아이는 선교사님께서 양자로 삼기로 했다. 나중에 소식을 들으니 선교사님께서 그 아이를 양자로 삼으려고 하셨다. 그런데 그 아이의 신분, 정확히 말하면 어머니가 확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국가에 양육권을 뺏길 뻔했다고 한다. 겨우 최악의 상황을 모면하고 얼마전 한국에 들어왔지만 한국에 친부모와 함께 들어온 것이 아니다 보니 탈북자로도 인정받기가 어려워서 대한민국 국적 취득도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 그 아이를 볼 때마다 탈북자의 아픔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어머니도 없고 나라도 없이 떠돌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이 아이가 하루 속히 국적을 인정받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계속>



국정원의 합동신문센터



**북한의 박해 받는 교회와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북한 후원: KB국민은행 029301-04-169183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전화: 02-596-3171 팩스: 02-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 스리랑카

## Sri Lanka



인구 : 21,019,000 명

주요 종교 : 불교

기독교 인구(카톨릭 등 포함) : 1,994,000 명 (9.4%)

기독교박해 순위 : WWL 2020- 30위, WWL2019- 46위

기독교박해 지수 : 65점

주 박해 요인 : 종교적 민족주의

### 스리랑카에서 크리스천들은 왜 박해를 받는가?

스리랑카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세속국가이지만, 실제로는 불교에 우선권을 주는 헌법을 가지고 있다. 이 불교 우선권이 나라 전체에 널리 공유되고 있다. 불교사원, 마을공동체, 협동농사, 이렇게 세가지가 싱할라족 삶의 “트라이앵글”을 이루고 있다. 이 사회질서를 깨뜨리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 민족주의 불교단체들은 서구에서 인기 있는 불교 철학에는 관심이 없고, 이 질서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부터 싱할라족의 삶을 지키는 것이 주 관심사이다. 역사적으로 내려온 전

통교회 소속의 크리스천들은 신앙을 표현하는 데 조금 더 자유를 누린다. 그러나 불교에서 개종한 크리스천들은 2류 시민 취급을 당한다.

### 스리랑카 크리스천들의 삶은 어떤가?

불교, 무슬림, 힌두교 출신의 크리스천들은 가족과 지역공동체로부터 괴롭힘과 차별을 당한다. 개종이 부족에 대한 배반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신앙을 버리도록 강요를 받는다. 대부분의 국립학교는 기독교를 교과과목으로 가르치지 않는다. 반면에 크리스천 학생들은 불교와 힌두교를 필수과목으로 들어야 한다.

### 종교적 민족주의

스리랑카는 종교, 민족적 갈등으로 얼룩진 역사를 가지고 있다. 26년간 지속된 내전은 2009년이 되어서야 종식 되었다. 2015년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전을 성공적으로 종식시킨 장기 집권자 마힌다 라자팍사는 정권을 잃게 되었다. 그 결과, 보두발라세나(BoduBalaSena) 같은 일부 급진주의 불교 단체들은 공개적 지지를 잃었지만, 여전히 대대적으로 활동하며 소수민족을 탄압하고 있다. 이러한 대부분의 공격은 2018년 3월에 일어났던 것처럼 이슬람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한다. 과격단체와 강한 민족주의(스리랑카의 불교를 다른 종교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의미에서)가 계속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기독교인에 대한 탄압은 이전 정부시절보다 덜 하지만 지방정부 공무원을 비롯한 불교도나 힌두교도들이 주로 기독교인들을 법적으로 제한하거나 협박하는 등의 탄압 사례들이 계속 보고되고 있다. 스리랑카는 내전의 역사 때문에 종교적 민족주의가 성행하게 되었다. 급진적인 불교 집단은 전국에 싹을 틔우고 전 정부를 의존하며 세력을 키워나갔다. 이슬람 급진화를 두려워한 불교세력은 특히 위협으로 여겨졌던 이슬람 소수민족을 탄압했다. 폭력사태가 증가하면서 2014년 이슬람교도가 살해되었고 2018년 3월 캔디에서 이슬람교도가 소유한 몇몇 사업체가 불교 급진주의자에 의해 파괴되면서 종교간 분쟁이 다시 불타올랐다. 기독교인 또한 탄압받았는데 종종 사프란을 두른 지역 불교 승려들이 이끄는 단체들이 공격해 왔다. WWL(월드와치리스트) 2020에 따르면,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기독교인을 겨냥한 98건의 공격이 있었고, 다수의 괴롭힘들이 있었다고 보고되었다.

### 싱할라-타밀 내전

스리랑카는 주로 불교를 믿는 싱할라(Sinhala)족이 전체인구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종교적, 민족적 이유로 길고 폭력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는 스리랑카는 수십 년의 긴장 끝에 싱할라족과 타밀족 간에 1983년

본격적인 내전이 발발했다. 싱할라 불교 다수파는 타밀 소수파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싸웠다(타밀은 대부분 힌두교인 이지만 상당수의 기독교인을 포함한다) 양측 모두 사망자가 많았다. 2009년 타밀 타이거즈 그룹(LTTE)의 패배로 마침내 전쟁이 끝났지만 진정한 평화와 화해는 여전히 요원하다. 장기적으로는 국가가 전쟁의 아픔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또한 화해가 합법적인 수단에 의해 이루어 질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이것이 국내 법원에서 다루어질 것인지 아니면 유엔이 제안한 것과 같은 하이브리드 솔루션으로 처리될 것인지 이 문제들이 오랫동안 언급되지 않을수록, 불만과 조급함의 수준은 더 강해질 것이다. 화해는 자주 듣는 용어지만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좀처럼 세워지지 않고 있다. 교회들은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고 양측의 구성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스러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독특한 위치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회 조차도, 너무 자주, 스리랑카 내부의 민족, 종교적 분열로 고통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2019년 4월 기독교인들을 겨냥한 자살 테러와 그 이후의 모든 것으로 교계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 급진주의 불교단체 “보두발라세나”

불교 승려들에 의해 시작되었고 소수 무슬림들을 공격하고 또한 훨씬 더 소수인 기독교인들도 공격해서 군중들을 선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의 관점은 역사상 최악의 부활절 테러가 일어난 해인 2019년 7월 캔디에서 행한 보두발라세나의 사무총장(Ganagoda Aththe Gnanasera) 연설에 잘 반영되어 있다. 연설에서 그는, 불교는 스리랑카 섬에서 위협을 받고 있고 다수 민족인 싱할라족은 국수주의 승려들의 도움으로 나라를 통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불교 승려들이 소수 무슬림을 처리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활절 테러공격이 거의 전적으로 기독교인들을 목표로 했다는 사실이나 스리랑카의 소수 무슬림들이 불교 급진주의자들에 의해 폭동, 약탈과 신체적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조금도 언급하지 않았다. 반대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개종한 소수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파괴시키고 있다고



고발했다. 이 발언은 더 많은 후 폭풍을 몰고 올 심히 염려되는 신호이다.

### 2019년 스리랑카 부활주일 폭탄테러:

4월21일 부활주일, 6차례의 연속적인 자살폭탄 테러 공격이 스리랑카를 뒤흔들었다. 첫번째 세 건물은 교회였고, 두 번째 세 건물은 5성급 호텔이었다. 그날 오후 늦게, 두 차례의 더 작은 폭발물이 게스트하우스와, 주택가에서 일어났다. 이는 IS 과격단체의 계획된 범행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총 253명이 사망하고, 500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다.

\*공격 받은 교회 3곳 : 콜롬보 시 코치카데의 '성 안토니교회', 네곰보의 '성세바스찬교회', 바티 칼로아의 '시온교회'

### 2019년 부활절 테러와 정부의 대응

인도 정보국이 스리랑카 정부에 '2019년 4월 초 이슬람 테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경고를 했었다고 한다. 그러나 스리랑카 정부는 관할지역에 제대로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고, 아무런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결과, 테러는 아무런 제지 없이 자행되었다. 일부 공무원의 직위에서 물러났거나 체포되었지만 정치적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었다. 대신, 급진적인 불교 승려들은 일부 공무원이 자살 폭탄 테러범들과 연관되어 있다고 비난하면서 인종 간 종교간 불화를 심화시켰고 결국 9명의 무슬림 장관과 2명의 도지사가 모두 물러났다. 그러나 이들 중 4명은 이 같은 의혹이 해소된 뒤 나중에 내각에 복귀했다. 스리랑카 정부는 종교적 소수 민족(이슬람교도와 기독교도)을 정책에 포함시키고 종교적인 증오를 부추기는 사람에 대해 단호하게 행동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불교 단체들은 더욱더 이슬람교와 기독교 소수민족들이 스리랑카 불교를 위협한다고 인식하며 이들을 배척하는데 지속적으로 힘을 쏟을 것이다.

새 대통령(Gotabaya Rajapaksa)은 당선 후 첫 연설에서 그가 "싱할라 문화와 유산을 보호하고 도덕과 전통



적인 방식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후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급진적 승려들이나 마을의 폭도들이 무슬림뿐 아니라 기독교인들에게 대항하여 행동하는 것을 쉽게 정당화할 수 있다. 특히 그는 불교도들의 급진적인 행동을 막지 않은 전력이 있고 심지어 적극적으로 그들의 행동을 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때문에 더욱 염려가 된다. 합법적인 정부의 제한이 더욱 기독교인들을 포함한 소수 종교인들에게 사용되어질 것이다.

### 2019년 부활절 테러의 3가지 교훈

#### 1. 왜 스리랑카인가?

스리랑카는 "자연스러운 대상"이 아니고 공격은 월드 와치 리서치가 수년간 관찰해오던 박해 패턴에 해당하지 않았다. 하지만 다수 불교도들로부터 강한 압박을 당하는 소수의 무슬림들이 있다는 것과 몇몇의 분열된 조직들이 급진적이 되어가고 폭력을 사용하려고 한다는 것이 주목되어 왔다. 스리랑카의 50-100명 정도로 추정되는 시민들이 시리아에서 싸우기 위해 IS의 집회소집을 따랐고 돌아온 사람들이 직접 행동하는 것이든 뒤에서 돕든 부활절 테러 공격의 핵심이 되었을지 모른다. 그들은 전투 경험으로 다져진 사람들이고, 전 세계의 지하디스트들에게(시리아에서 함께 싸웠던) 연결되어 있고 또한 은밀한 소통 기술에 훈련되어 있다.

#### 2. 자살폭탄 테러범들의 배경

자살 폭탄 테러범들이 가난한 사람들이고 사회의 소외된 변두리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고, 스리랑카 정부

당국에 따르면 그들은 (상위) 중산 계층 출신이고 상대적으로 고등 교육을 받고 몇몇은 심지어 해외에서 공부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 일이다. 2016년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홀리 아티잔 제과점(Holey Artisan Bakery)"에서 인질극 후 일어났던 것과 여기 침울한 유사점이 있다. 이 사실은 명심해야 한다. IS의 다양한 이슬람 테러는 다른 무엇보다도 더 중산 계층 '현상'으로 보이고, 경제적 동기가 아닌 이데올로기적인 것임을 시사한다.

#### 3. 왜 기독교인들인가?

스리랑카의 역사를 볼 때, 기독교인들을 향한 박해의 요인은 급진적인 불교 승려들, 폭력배들, 이웃들, 때로는 연루된 국가였고 지금도 그러하다. 그들로부터의 공격들은, 물론 대량학살은 없었고, 살해에 미치지도 않았었다. 무슬림들은 기독교인들 이상으로 박해를 받아왔고, 2018년 3월(2018.3.13. 외교관)과 같이 몇 사람들이 살해되는 사례도 있었다. 따라서 이슬람 무장단체에 의한 2019년 부활절 테러공격은 이러한 패턴과 맞지 않는다. 그에 대한 해답은, IS 이데올로기는 정해진 패턴이 필요 없다는 것이다. IS 지도자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의 교리를 언급하면서 기독교인들이 (비열한) "다신론자"가 되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그들이 어디에 있는 공격해야 한다(2019.4.15. 타임지)고 단순히 주장한다. 이런 식으로, 최근 몇 년 사이 수많은 다른 공격과 같이, 스리랑카에서의 테러 공격은, 폭력 뒤에 숨은 동기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이데올로기가 핵심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스리

랑카 소수민족들의 종교적, 민족적, 사회 경제적 상황들만 보는 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보는 것이고 잘못된 질문을 하는 것이다.

스리랑카의 부활절 테러 공격은 IS가 지리적으로는 패배할 수 있지만(예를 들어 이라크와 시리아에서처럼) 그들의 이데올로기는 죽지 않음을 보여준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그러한 공격을 더 많이 목격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과거 수년 동안 여러 국가들에서 보여진 박해패턴들이 깨지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 스리랑카를 위한 기도

- 2019 부활절테러 희생자 가족들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과, 테러의 표적이 되었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 스리랑카의 모든 교회 가운데 일치와 연합이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테러 1주기를 맞이하여 끔찍했던 기억이 되살아나는 고통과 슬픔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예배를 통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 대부분, 박해는 극단주의 불교도들에게서 옵니다. 그러나 마을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이유로 이웃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자주 횡방을 당하는 스리랑카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그들이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피곤해 낙담하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도록 기도해주세요.
- 폭탄테러와는 별개로, 스리랑카에서 크리스찬 박해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압박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과 교회들은 법적인 권리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법정에 고소를 당할 경우 감당할 비용이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법적인 투쟁을 포기합니다. 결과적으로, 투옥이 되지 않더라도, 지역사회에서 입지를 어렵게 만드는 범죄 기록을 가지게 됩니다. 스리랑카 목회자들이 정부에 의해 부당한 대우와 검박을 당하지 않을 수 있게,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기도해주세요.



## God In Our Grief

# 우리의 슬픔 가운데 계신 하나님

바티칼로아 시온교회는 작년 부활절 폭탄테러로 어린이를 포함한 성도 31명을 잃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망자가 28명이었으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생존자 3명이 사망함으로써 희생자가 31명으로 늘었습니다. 오픈도어는 테러 후 5월, “함께”하고 기도하기 위해 시온교회 희생자 가족들을 찾아갔습니다. 오픈도어가 만난 그들의 슬픔 속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천국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후 첫번째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맞이하게 될 이들은 아픈 기억들을 다시 떠올려야 할 것입니다. 사순절과 고난주간에 시온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기도해주세요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현수막들



## “선생님, 눈을 감기가 싫어요...눈만 감으면 불길이 보여요”

4월 21일 아이들은 아침을 먹고 있고, 부활주일 예배가 막 시작되었을 때 테러범이 시온 교회 마당에서 폭탄을 터뜨렸다. 그날 시온 교회에는 136명의 아이들이 있었고, 그 자리에서 26명이 사망했다. 주일학교 교사 스테 파니는 그날 폭탄테러 후에 아이들이 괴로와하던 것을 회상하며 아이들이 눈만 감으면 불길이 보여서 눈을 감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녀는 그날 아이들이 부활절 특별 프로그램을 즐기고 있던 모습을 찍은 사진을 꺼내서 보여주었다. 행복한 아침이었다. 아이들은 둥글게 원을 그리고 서서 손에는 촛불을 들고, 찬양을 하고 있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있었다. 선생님들은 거룩한 삶을 살 것을 가르치고 있었다. 주일학교 교사 베를리니는 아이들에게 도전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싶은 어린이 있어요?” 5, 6명이 손을 들었다. 베를리니 선생님은 그 아이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해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는지 확인하고 있었다. 그리고 부활절 자살폭탄 테러가 일어났다...



## “그날 내친구 7명이 죽었어요...”

14세의 디나는, 남동생 케빈을 부활절 폭탄 테러로 잃었다. 케빈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겠다고 가장 먼저 손을 든 여섯 명 중의 한 명이었다. “나는 아침을 거의 다 먹고 물을 마시고 있는데 폭발음이 들렸어요. 케빈은 아침을 다 먹고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나봐요. 케빈은 계단에서 죽은채로 발견되었어요.” “그날 내 친구 7명이 죽었어요.” 디나는 조용히 말을 이어갔다. 디나 역시 병원에 입원했었다. 폭탄 파편이 뺨을 꿰고 들어가 이빨을 부러뜨렸다. 아직도 입술에 파편 자국이 남아 있다. 디나는 한동안 벽만 훑어져라 쳐다보았다, 옆에는 디나의 엄마가 공허한 눈길로 돌부처처럼 말없이 냉랭하게 앉아있었다. 디나의 아빠, 셀람이 이야기를 이어갔다. “나는 그날 일을 하고 있었어요. 큰아들 프라가쉬는 자전거를 만지고 있었는데 폭탄이 터졌어요.







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없으니 여전이 마음이 아프지요.” 셀람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주님께 갈 준비를 해야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과 함께 케빈을 만날 것입니다.”

## “내 아내와 딸의 믿음에 대해 말해주세요...”

예간은 5살난 안잘리나의 아빠이자, 36세 신티리의 남편입니다. 그는 질문했다. “만일, 그렇게 그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그들을 이렇게 이런식으로 데려가셨나요?” “만일 이게 순전히 인간의 범행 때문이라면, 하나님은 왜 막지 못하셨나요?” 예간은 전에 교회에 다녔었다. 그러나 폭탄테러가 일어나기 전에 교회에 나가지 않고 있었다. 이제 그는 아내와 딸을 잃었다. 그는 머리를 흔들며 눈물을 흘렸다.

“내 딸고 아내는 하루에 한시간씩 기도했어요. 우리 힌두교 온 집안에서 유일한 크리스찬이었 습니다.”

예간은 이어서, 안잘리나와 신티리가 교회에 가는 걸 얼마나 좋아했는지 말했다. 나는 예간에게 안잘리나와 신티리에 대해 사람들에게 말해도 되는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는 대답했다. “말하세요, 모든 사람에게 말하세요. 사람들에게 내 아내와 내 딸의 믿음에 대해 말해주세요.”

## “나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엄마를 왜 데려가셨느냐고 질문하지 않아요. 엄마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 폭발 때문에, 나라 전체는 무사한거지요?”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 폭탄테러범만 죽고 다른 사람들은 안 다치게 할 수도 있었을텐데 라는 생각도 들어요.” 라고 힌두교도인 프리야다르샤니가 말했다. 그녀는 기리자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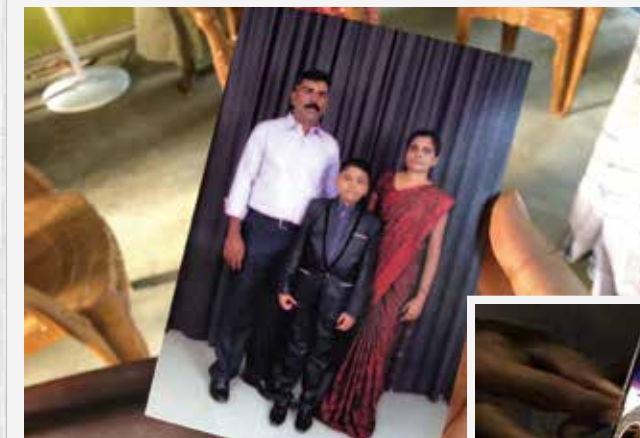
프라가쉬가 동생 케빈의 시신을 꺼내고 여동생도 병원으로 데려갔지요. 내 동생은 벌써 죽어 있었어요....나는 모든 걸 보았는데, 아무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여동생을 병원으로 데려 갔어요.” 그때 케빈은 9살로 초등학교 4학년이었다. “케빈은 아주 사교성이 좋아서 모두에게 말을 붙이곤 했어요.”라고 아버지 셀람은 이야기했다. “사람들은 케빈을 좋아했지요. 학교 교장 선생님도요. 교장선생님이랑 아주 친구 같았어요.” “내 아들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위로를 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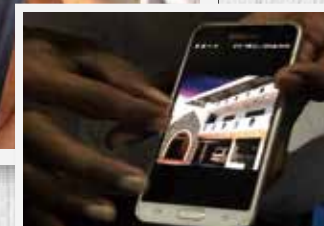
을게이다. “기리자는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을 만나러 교회에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녀를 구할 수 없었어요.” “기리자는 아이들 네 명을 남기고 죽었어요. 막내가 세살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 건가요?”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다. “음, 그 폭발 때문에, 정부가 다른 폭탄들을 찾았어요, 그 폭발 때문에 나라 전체는 구해진거죠.” 프리야다르샤니는, 그 폭발 테러 후에 정부가 공항 근처와 버스 정류장 자동차들에서 폭발물을 찾아낸 사실을 상기하며, 이성적으로 말했다. 희생자 기리자의 14살난 아들 샤르케쉬는 엄마를 엄격했던 분으로 기억했다. “우리가 잘못을 하면 엄마는 우리를 때리셨어요. 그리고나서는 다시 농담도 하고 우리를 웃게 만들었어요.” 그는 또 “엄마는 우리를 모아서 가정예배도 인도하셨어요.” 기리자의 하나 밖에 없는 딸인, 12살 두카쉬니도 이야기를 했다. “나는 잘 자고 잘 먹을수 있는데, 세 살배기 내 동생은 새벽에 깨서 '엄마'를 부르며 울어요 그리고 다시 잠이 들어요.” “폭발이 일어날 때 나는 아침을 먹고 있었는데, 엄마가 나를 앞으로 데리고 나오셨어요, 엄마는 아직 뒤에 계셨죠, 폭발이 일어나, 나는 엄마를 찾으러 뒤로 갔어요.

엄마는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세 살 먹은 내 동생은 안다쳤고 울기만 했어요. 나는 엄마를 끌어당겨 벽에 기대게 해놓고 내손에 들고 있던 물컵을 엄마 얼굴에 끼얹었어요. 엄마가 깨어나길 바라면서요 근데 엄마는 깨어나지 않았어요.” “나는 엄마랑 놀기를 좋아했어요....나는 슬퍼요. 그래도 이제 나는 엄마가 천국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을 알아요.” 16세의 장남 수지브가 끼어들었다. “일어난 일은 이미 일어난거잖아요....우리 엄마는 가셨어요. 이제 내가 엄마를 대신해야지요.” “나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엄마를 왜 데려가셨느냐고 질문하지 않아요. 엄마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요.”

## “그래도 내가 아는 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목격자들은 교회 지도자인 라메쉬와 사시가 폭탄테러범들이 예배당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것을 보았다. “만일 폭탄테러범들이 안으로 들어갔더라면, 200명 이상이 죽었을거예요.” 라고 쿠마란 목사는 말했다. 라메쉬와 사시는 그자리에서 즉사했다. 라메쉬의 아내인 크리스산티도 폭발음을 들었다. “나는 교회에 있었어요. 5분 후면 예배가 시작될 참이었어요. 그때 엄청난 폭발음을 들었지만 무슨 일어났는지 몰랐어요. 우리는 그게 발전기인줄로 생각했어요. 나는 사





람들이 벽을 깨는 걸 보고 사람들이 있는데로 갔는데, 병원에 가서야 남편이 죽은 걸 알았어요." "하나님 모르게 일어나는 일은 없지요..." 그녀는 슬픔을 억누르며 말했다. "그래도 내가 아는 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 “내 질문은 ‘주님, 제가 어떻게 이 아픔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오래?’ 라는 거예요.”



"내 아들에게 일어난 일을 생각할 때마다,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 있어요." 말키야의 아버지인 쿠마란 목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러나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하는 질문이 아니예요, 아니지요, 그런 질문이 아니예요. 내 질문은 '주님, 제가 어떻게 이 아픔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오래?'라는 거요. 말키야는 그의 둘째 아들이다. 말키야는 트럼펫을 연주했고, 매우 총명했다. 거실에는 그가 텍시도를 입은 말키야의 사진이 붙어 있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는 말키야가 받았던 메달과 트로피들이 놓여있었다. 쿠마란 목사는 말키야가 동정심이 많았다고 회상했다. "그는 주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많이 돌봤어요." 그는 또 아들이 폭탄테러가 나기 며칠 전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는 반복해서 불렀던 것을 기억했다. 아들에게 그 노래를 왜 자주 부르는가 물으니 아들은 "이곡이 좋아서요, 아빠"라고 대답했다. 장례식이 시작되던 날, 쿠마란 목사는 마음이 찢어졌다. 교인들을 돌봐야했지만, 또한 아들을 위해 슬퍼할 시간이 필요했다. 아침 일찍 말키야의 하관식을 했다. 그리고는 곧바로 희생된 다른 성도들의 장례식으로 달려가야했다. "나는 목사니까요." 쿠마란 목사는 중얼거리듯 말했다 "강해야하죠"

거실의 작은 의자에 말키야의 엄마가 앉아서, 쿠마란 목사가 아들 이야기를 하는 동안,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가 심하게 들쭉거렸다. 뒤이어 깊은 한숨과 함께 주방으로 사라지더니 얼마후에 과일 주스를 들고 나와 우리에게 건네주었다. 그녀는 멍하니 아들 사진을 보더니 나를 돌아보며 말했다. "비통함이 아니예요, 추억들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녀의 손을 잡아주는 것 밖에 없었다. 쿠마란 목사의 가족은 사진요청에 포즈를 취해주었다. 말키야가 죽은 이후, 말키야의 사진 앞에서 찍는 첫 가족사진이었다. 우리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작별인사를 했다. 그런데 그때 말키야의 엄마가 무너져버렸다. "눈물이 다 마른 줄 알았는데" 그녀는 통곡했다. "창자가 끊어져요, 하나님께 원망은 없어요, 하나님과 싸우고 싶지도 않아요, 나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을 받아들여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12년이나 아들과 함께 살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 “피터는 그냥 죽은 게 아니예요, 그 아이는 순교자로 죽었어요.”



입은 환자가 있는데, 부활주일날은 피터를 맞아 기른 청지기이고 피터의 아빠인 수다가란이 말했다. 입은 환자가 있는데, 부활주일날은 피터를 맞아 기른 청지기이고 피터의 아빠인 수다가란이 말했다. 피터는 붉은색 셔츠를 입고, 머리는 피문은 흰 수건으로 싸여 있었다. "우리는 벽을 깨고 나가야 했어요, 나는 사람들이 나가도록 돕고 있었지요, 그때 제부가 우리 딸을 데려왔는데, 나는 주의를 돌릴 수도 없었고, 사람들이 모두 나갔는데, 보니 피터가 없었어요." 그녀는 설명을 이어갔다. "목사님 사택을 보니 불이 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말했지요,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라고요, 나는 사리를 입고 있었는데 쉽게 불이 붙기 때문에 그랬어요. 피터는 여전히 찾을 수가 없었어요. 동생인 아이 엄마도 피터를 찾고 있었는데, 마침내 피터의 아빠가 말했지요. '피터는 여기 없어. 주님 품으로 갔어.' "피터는 그냥 죽은 게 아니예요, 그는 순교자로 죽었어요." 딜리니 이모는 덧붙였다. "우리가 머리로는 알아도,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지요." 피터의 엄마인 프라바는 자기의 어린 아들을 이렇게 묘사했다. "아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기도를 했어요. 순종적인 아이였고, 착한 마음씨를 가졌어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수 있는 아이였어요." 그녀는 눈을 깜박이며 눈물을 삼키고 말했다. "나는 아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기뻐요. 그래도 내 곁에 없으니 고통스럽지요..."

"이것은 피터가 입었던 것과 같은 색깔이에요." 피터의 유품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의 이름이 새겨진 나무 십자가 앞에 그의 사진 액자가 기대어 놓여있었다. 그 옆에는 축구 공과, 핑크색 스쿠터, 파란 헬멧, 테디베어, 크리켓 방망이가 놓여 있었다. 사진 속에서 피터는 빛나는 은빛 나비넥타이를 매고 있었다. 장난감 중에는 종이로 만든 작은 병원도 있었다.

폭탄테러가 있기 몇주 전에, 피터가 직접 자르고 붙여서 조립한 모형 병원이다. 병원 복도에는 들것을 들고 가는 사람이 있고, 들것에는 갈색빛이 도는 빨간색 옷을 피터가 똑같은 색 옷을 입고 있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데려가셨지요."라고 피영안실에서, 피터의 이모, 딜리니는 피터가 다른 두 아이들과 놀고 있는 동영상을 보여주었다. 피터는 붉은색 셔츠를 입고, 머리는 피문은 흰 수건으로 싸여 있었다. "우리는 벽을 깨고 나가야 했어요, 나는 사람들이 나가도록 돕고 있었지요, 그때 제부가 우리 딸을 데려왔는데, 나는 주의를 돌릴 수도 없었고, 사람들이 모두 나갔는데, 보니 피터가 없었어요." 그녀는 설명을 이어갔다. "목사님 사택을 보니 불이 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말했지요,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라고요, 나는 사리를 입고 있었는데 쉽게 불이 붙기 때문에 그랬어요. 피터는 여전히 찾을 수가 없었어요. 동생인 아이 엄마도 피터를 찾고 있었는데, 마침내 피터의 아빠가 말했지요. '피터는 여기 없어. 주님 품으로 갔어.' "피터는 그냥 죽은 게 아니예요, 그는 순교자로 죽었어요." 딜리니 이모는 덧붙였다. "우리가 머리로는 알아도,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지요." 피터의 엄마인 프라바는 자기의 어린 아들을 이렇게 묘사했다. "아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기도를 했어요. 순종적인 아이였고, 착한 마음씨를 가졌어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수 있는 아이였어요." 그녀는 눈을 깜박이며 눈물을 삼키고 말했다. "나는 아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기뻐요. 그래도 내 곁에 없으니 고통스럽지요..."

## “아직 아파요...”

2019년 5월 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년 여성 구나순다리는 오픈도어의 방문을 받자 힘을 다해 겨우 몸을 일으켜 세웠다. 다리에선 아직도 깁스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작은 유리병을 들어 보여주었는데 그 속에는 은색 금속공이 있었다. 그녀의 다리에 박혔던 폭탄 파편이었다. 그녀는 '아직도 아프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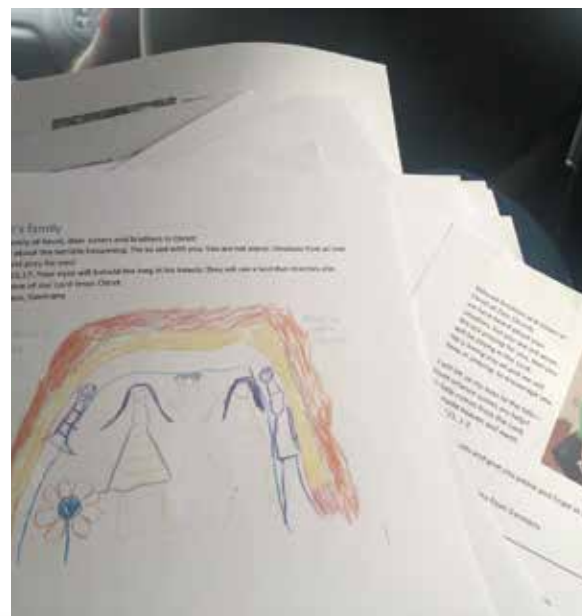






## 오픈도어 '사랑의 선물상자 Care Box'를 시온교회 희생자 가족에게 전달하다

스리랑카에서 일어난 부활절 테러로 인해 상처입은 가족들을 위한 편지쓰기와 사랑의 선물 상자 캠페인에 참여해주신 모든 본부와 후원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현장팀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미술 재료와 잼, 비스킷, 장신구, 격려의 메세지들을 타밀어로 번역된 책 '폭풍 가운데 굳게 서기(Standing Strong through the Storm)'와 함께 포장하여 테러로 인해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바티칼로아 시온 교회의 24가정에 전달하였습니다. 또 시간과 노력을 들여 편지의 일부를 타밀어로 번역하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이 곳에 있는 친구들에게 큰 감동이 되었으며 여러분의 격려의 메시지가 더 잘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쿠**마란 목사님은, 아들 말키야를 잃은 후로 오랜만에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물상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에 제 딸이 열어보고는 '이제 이거 다 내 거예요.'라고 하더군요." 그때 8살 난 딸, 셰미다가 끼어들며 신이 나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선물 감사합니다!" 사라다 사모님도 오픈도어 현장사역자에게 말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날, 여러분들이 오셔서 제 등을 만지며 기도해주었어요.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여러분과 주님의 임재가 우리 눈물을 씻어주었습니다"

**프**레미니는 이번 테러로 9살 난 아들 예비산쓰를 잃었고, 메삭이라는 다른 아들은 얼굴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저희가 5월에 처음으로 방문했을 때, 메삭은 막 화상 복원수술에서 회복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 치유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프레미니는 선물 상자를 집에 가져갔을 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저희는 정말 너무 기뻐요. 제 아이들이 색칠 재료들을 보고

정말 행복해했어요. 17살 된 아들 띠순이 미술을 공부하거든요. 아이들이 신이 나서 모두 가져갔고 편지들을 보고도 정말 기뻐했어요. 아이들이 여러분께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한다고,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했어요."

**크**리산씨는 테러범이 교회 내로 들어가는 것을 막다가 사망한 라메쉬(40세)의 아내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상자에 편지가 너무 많이 들어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매우 큰 사랑을 느꼈어요! 저희 아이들도 정말 기뻐했어요. 그저 선물 때문이 아니었어요. 전세계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저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저희 모두 어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곳곳으로부터 저희에게 도움을 보내주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요. 네 분이 저희 아이들의 이름을 편지에 썼는데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그분들이 저에게 또한 예레미야 29장 11절 같은 약속의 말씀







라메쉬의 아내 크리산띠

들도 주셨어요. 저는 큰 격려를 받았고 계속 나아갈 힘을 얻었어요. 여러분들의 존재는 저희가 고아가 아닌 것 같아주고 있어요.”

크리산띠에게는 14살 룩쉬카와 12살 니루반 두 아이들이 있습니다. 남편 라메쉬의 영웅적인 행동이 알려져, 스리랑카의 수상이 직접 크리산띠 가족에게 상을 수여했습니다.

크리산띠는 “저희는 가정예배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 사고 다음날 밤에도, 저희는 가정예배를 드렸어요. 저는 매일 밤 아이들에게 성경 읽기를 가르쳐요. 그리고 너희는 정말 강하다고 말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아파를 보내주셨는지. 이제 그분이 아파를 다시 데려가신 거야.'라고 말해줘요. 또 '우리는 우리 모든 필요를 하늘 아버지께 올려드릴 수 있단다.'라고 말하곤 해요.”

크리산띠는 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하나님과 더 자주 이야기할 수록, 저는 그분께 더 묻고 싶은게 많아져요. 사실 저는 사랑하는 이를 잃었잖아요. 그렇게 사랑이 많던 남편을 잊을 수 없었거예요. 제 안에 상한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사랑하시죠. 제 아픔을 통해, 그를 찬양합니다.”

**피**터의 엄마 프라바는, “오늘 아침, 여러분들이 오실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을 봤을 때 저는 정말 기뻐했어요!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저희랑 정말 많은 시간 같이 있어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서 고맙다고 말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프라바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준 모든 후원자분들에게 전하고 싶다는 편지 한 통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피터네 가족 - 피터의 아버지 수따가란과 누나인 12살 앤 사다나, 피터의 어머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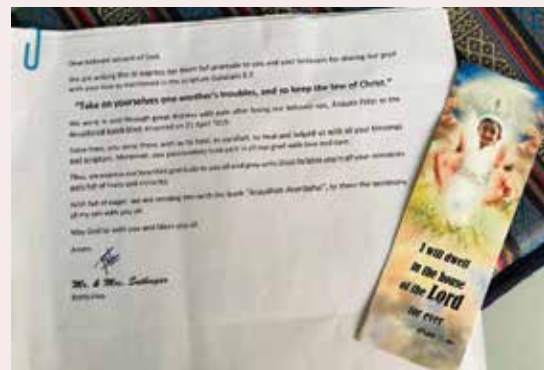
하나님의 사랑받는 청지기분들께

저희는 2019년 4월 21일 발생한 충격적인 폭탄 테러로 사랑하는 아들, 아나야 피터를 잃은 후 크나큰 고통과 고뇌의 나날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날부터 여러분들은 축복의 말들과 성경말씀으로 우리를 붙들고, 위로하고, 치료하고 또 돕기 위해 저희와 함께 있어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열정적인 사랑과 돌봄으로 저희의 슬픔에 동참해주셨습니다.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를 드리는 바이며 여러분의 모든 사역에 풍성한 열매와 기적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아들의 간증이 담긴 책 “Anayahvin Arumbahal”을 여러분께 보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축복이 여러분과 늘 함께하길 바랍니다.

아멘.

바티칼로아의 수따가 부부 드림.



## 시온교회 성도 6명 새 오토바이를 받다

"우리는 폭탄테러로 오토바이가 불타버린 성도 6명의 오토바이를 사러 갔어요. 시온교회 성도들과 같이요." 오픈도어 사역자가 보고했다. "시온교회 성도는 여러 가게에 우리를 데리고 다니면서 오토바이를 싸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가게 직원들도 우리를 열심히 도와주려고 했어요. 두 가게에서 아주 적당한 할인을 해주어서 오토바이를 사고 등록비도 할인을 받았어요. 우리는 또 헬멧이 없는 사람, 헬멧까지 타버린 사람들을 위해 헬멧도 구입했습니다. 목사님과 성도들이 감사인사를 전했어요. 사진은 성도들과 새 오토바이 모습입니다. 오토바이 하나는 다음날 성도집으로 배달될 예정이어서 사진에서 빠졌습니다. - OD 사역자



불타버린 시온교회 성도들의 오토바이들



\*오픈도어는 스리랑카 부활절테러 희생자들에게, 기도회와 트라우마 상담, 박해대처 세미나, 교육과 생계 지원, 실제적인 도움과 물품 지원을 통해 약 250가정을 돕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특히 시온 교회에 집중하여,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며 희생자들을 도울 것입니다



## 부르키나파소, 연이은 교회 공격, 성도 살해와 목회자 납치



2월10일, 신원불명의 무장대원들이 부르키나파소 북동부 세바(Sebba)에 있는 복음주의 '심SIM' 교회 집사(Lankouandé)를 저격해서 살해하고, 같은 날, 그 교회 오마르(Omar Tindano) 목사님을 차로 납치했다. 결국 2월13일에 오마르 목사님은 아들과 두 조카와 함께 살해되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9일에도, 신원불명의 무장대원들이 동부 지역, 복음주의 개신교회를 예배 중에 공격했었다. 또다시 2월16일 주일, 무장세력이, 사헬 지역에 해당하는 북동부 지역에 위치한 야가 지역 판시 마을에 있는 한 교회를 공격하여 20명이 죽고, 담임목사를 납치하고, 교회에 불을 질렀다. 이 교회의 소속 및 자세한 사항은 확인 중인 상태이다. \*희생자 가족, 납치된 목사님의 안전과 피신한 부상자 및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나이지리아, 보코하람에 납치된 여성 구호사역자 석방

작년 12월22일에 보코하람 단체(ISWAP 분파)에 의해 마이두구리 도로에서 납치되었던, 국제의료연맹(ALIMA) 구호사역자 제니퍼(Jennifer Samuel)가 1월16일 석방되었다. 제니퍼는, 지난 2018년 3월에 납치된 UN 아동기금 소속 의료사역자 앨리스와, 이슬람으로의 개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2018년 2월, 학교에서 납치된 소녀, 레아 샤리부와, 2019년 7월에 납치된 구호사역자 그레이스가 무사하다고 전했다. 안타깝게도 그레이스와 함께 납치된 남성 구호사역자 4명은 납치된 지 며칠 만에 처형되었다. \*보코하람 단체에 납치되어 노예상태로 있어야 하는 레아 샤리부 및 다른 소녀들과 그레이스가 속히 풀려나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주세요.



## 파키스탄, 아시아 비비 자서전 출간

동네 우물가에서 사소한 말다툼을 빌미로 신성모독죄로 고발을 당해 사형 선고를 받고 투옥되어 9년간 수감생활을 하다가 전세계 성도들의 기도와 지속적인 변호사역으로 석방된 파키스탄 여성 크리스찬, 아시아 비비가 유명 프랑스 언론인 작가의 도움으로 자서전, "오랜 끝에 자유(Enfin Libre)"이 1월29일에 출간되었다. 책을 출간하며 아시아 비비는, "여러분은 제 입장에 서보려고 하셨겠지만 제가 감옥에서 하루하루 생존하던 날들을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제가 받은 새 삶도요 그래서 제가 모든 것을 이야기하려고 이 책을 냈습니다."라고 말했다.



## 파키스탄, 2015년 부활절 테러 관련 투옥자 크리스찬들 40명 석방

아시아 비비의 자서전이 출간되던 1월29일, 파키스탄에서 크리스찬 40명이 투옥된 지 5년 만에 석방되었다. 2015년 3월 탈레반 단체에 의한 파키스탄 교회 쌍둥이 자살폭탄 테러로 인해 17명이 사망하자 크리스찬들이 격렬하게 항의시위를 하던 중, 범인으로 여겨지는 무슬림 2명이 불에 타는 일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크리스찬 42명이 체포되었고 2명은 옥중에서 병사하고 남은 40

명이 이번에 사면 석방되었다. 파키스탄에서는 2015년에 이어 2016년에도 교회에 대한 이슬람 자살폭탄테러가 일어나 76명이 사망하고 300명 이상의 부상자가 났다. 2017년의 시도는 정부에 의해 사전 차단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오픈도어의 네이버 포스트(주소/ opendoorsk) 참고해 주세요.

## 방글라데시, 로hing야 난민촌 크리스찬들이 공격과 납치를 당하다

1월 27일, 무슬림 단체 대원 수백명이 로hing야족 난민촌의 크리스찬 가정들을 약탈하고 성도들을 공격했다.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MBB 로hing야 족 18가정과 가정교회 1곳이 무슬림 단체의 공격으로 파괴되었고, 최소한 6명의 성도들은 병원에 실려가고 남자 성도 3명이 납치되었다. 공격을 한 무슬림단체는 알카에다나 IS

같은 외국 이슬람단체 소속은 아니라고 한다. 한편, 이러한 사건에 대한 수사 요구에도 불구하고 방글라데시 경찰은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고소를 해야 수사를 하겠다고 하지만 로hing야 족은 방글라데시에서 난민들이라 시민권이 없어 고소를 하기가 어렵다.

## 이란, MBB 여대생 기독교활동가 메리, 테헤란 카르차크 감옥에 구금



무슬림에서 개종한 21세의 이란 여대생, 메리(본명은 파테메 모하마디나 '메리' 로 불려지기 원함)는 12월 테헤란 대학교에서 이유없이 퇴학을 당했고, 그후 3주간 실종된 것으로 여겨졌으나 1월 12일 이란 당국에

의해 체포되어 테헤란 남부의 카르차크 감옥에 구금된 것이 밝혀졌다. 이란의 우크라이나여객기 격추에 대한 항의시위 현장이 있다가 체포된 것으로 보인다. 소식통에 의하면, 메리는 장시간 심문을 받고, 스트립 몸수색을 받았으며, 구타를 당하여 3주간 타박상이 눈에 띄었다고 한다.

이전에도 메리는 기독교활동을 이유로 "국가안보에 반하는 행동"과 "국가제도에 반대하는 선전"이라는 죄목으로 기소되어 6개월 형을 살았다. 또 지난해 7월에는 '부적절한 히잡 착용'이라는 죄목으로 형사고 발에 직면하기도 했다. 메리는 다른 인권문제와 관련된 많은 홍보와 옹호 활동에 비해 이란의 기독교인, 특히 개종한 기독교인들(MBB)의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메리 자매와 이란의 MBB 크리스찬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 Heart to Heart

후원자 스토리



오픈도어와 함께 했던 저의 13년...

저는 월드교회 아동청소년부를 섬기고 있는 문민환 전도사입니다. 후원자스토리를 보니 오픈도어와 함께했던 저의 13년이 떠올라 나누려고 합니다. 때는 2007년, 제가 강원도 고성에서 군생활을 하고 있던 시절, 매일 생명의 삶으로 묵상을 하던 중 광고란에서 '하나님의 밀수꾼'이라는 책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박해 받는 교회는 북한 교회 외에는 생각해 본 적이 없던 저는, 친구를 통해 그 책을 구해서 병장 휴가 때 방에 틀어박혀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월급에서 헌금을 따로 모아 송금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대로 복귀하여 군중병들에게 오픈도어에 대해 소개하고 하나님의 밀수꾼을 여러 권 구입하여 나누어 주며 읽도록 권면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동역자들의 마음속에도 저에게 주셨던 같은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고린도전서 12:26) 당시 개역한글 성경을 보던 저는 이 구절이 더 가깝게 다가왔습니다.

전역 후에도 부임하는 교회들과 신학교에서 만나는 동료 사역자들에게 오픈도어에 대해 소개하고 후원자가 될 수 있도록 안내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주일학교 교사들과 청소년, 또 청년들과 오픈도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회지 발송 작업을 돕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가는 교회마다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오픈도어를 소중히 하고 오픈도어를 통해서 박해받는 교회와 지체를 도울수록 하나님은 저와 교회사역을 축복해주셨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인천 부평구에 있는 월드교회에서 다문화 아동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도 오픈도어 회지와 월력을 받고 매달 헌금을 드립니다. 예배 후에는 모여서 기도월력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의 작은 소망은 앞으로 담임 목회를 하게 되면 그 교회에 오픈도어 지부를 세우고 싶습니다. 매달 정기 기도회도 열고 많은 사람들에게 오픈도어의 하는 일을 소개하고 알리는 일을 평생 사명으로 알고 헌신하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오픈도어를 통해 박해받는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오픈도어 캠페인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고린도전서 12:26)



## "순교자/투옥자 가족, 파괴된 교회 건축"을 위해 헌금해주세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예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골로새 3:32)

www.opendoors.or.kr

지난 1년 간 거의 3,00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3,700명 이상이 재판없이 투옥되었으며, 교회와 성도들의 집과 재산이 파괴와 공격,몰수를 당한 일들은 15,000건에 이릅니다. 박해와 순교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1월 나이지리아 라완 목사님의 순교에 이어 아프리카에서 이슬람 과격단체에 의한 교회 공격과 성도들에 대한 무차별적 살해, 목회자 납치와 살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순절에 박해받는 교회를 기억하시고 순교자와 투옥자 가족, 파괴된 교회건축을 위해 헌금해주세요!



헌금은 아래 희망의 선물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고 선교회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한은행 100-027-453994 (예금주:한국오픈도어선교회)

### 알립니다

- 사순절과 고난주간에 전세계 박해 받는 성도들을 위한 시간을 갖기 원하시는 교회나 기관은 선교회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 02-596-3171 / 010-7548-3171 / opendoorkorea@gmail.com
- WWL2020 박해지도가 나왔습니다. 교회나 선교회에서 신청하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일학교용 어린이 박해지도와 저금통도 신청하시면 보내드립니다.
- 박해받는 교회를 위한 "300기도용사"를 신청하시면 카카오톡으로 주간기도제목을 보내드립니다.  
월간회지 보다 빨리 더 많은 소식과 기도제목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 010-7548-3171
- 오픈도어 주간기도 제목은 네이버 포스트에 매주 올려집니다. 네이버에서 포스트 메뉴로 들어가셔서 주소창 끝에 / opendoorsk (https://post.naver.com/opendoorsk)
- 오픈도어 '후원자 스토리'를 보내주시면 소정의 '오픈도어 선물'을 보내 드립니다.^^  
보내실 곳 : odsk@opendoors.or.kr
- 월간 소식지와 기도월력은 홈페이지 상단메뉴 자료실 > 발행자료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오직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을 위한 나의 희망의 선물 2020

우리의 작은 실천이 한 사람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 훈련	선물 1	아프리카의 박해 국가 어린이들에게 성경 전달	×	5,000원	=	원
	선물 2	시리아의 제자훈련 프로그램	×	70,000원	=	원
	선물 3	중동의 목회자 훈련 사역	×	150,000원	=	원
생존	선물 4	위험에 처한 무슬림 국가의 성도들을 위한 안전가옥 제공	×	100,000원	=	원
	선물 5	탈북자들을 위한 안전가옥 제공	×	50,000원	=	원
	선물 6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상담 사역	×	80,000원	=	원
여성	선물 7	박해의 최전선에 있는 여성들을 위한 영육간의 돌봄 제공	×	30,000원	=	원
	선물 8	무슬림 국가에서 박해받는 크리스천 어린이들에게 신앙 교육	×	80,000원	=	원
어린이	선물 9	중앙아시아의 박해받는 크리스천 어린이들에게 신앙 교육	×	20,000원	=	원
	선물 10	박해 최상위 10개 국가의 어린이들에게 기독교 서적 전달	×	10,000원	=	원
난민	선물 11	중동의 크리스천 난민들에게 대피소와 구호품 제공	×	100,000원	=	원
	선물 12	한 사람의 난민의 훈련과 의료적 돌봄	×	40,000원	=	원
총 계					=	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www.opendoors.or.kr](http://www.opendoors.or.kr)

## 참여안내

보내주신 헌금은 후원자분들의 뜻에 따라 각 선교지에 보내어집니다.

1. 전달하려는 선물에 표시하고 총 선물 금액을 계산합니다.
2. 총 선물 금액을 오픈도어 캠페인 계좌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신한은행] 100-027-453994 (예금주: 한국오픈도어선교회)
3. 전화 (02-596-3171) 또는 이메일 (odsk@opendoors.or.kr)로 선물 신청 내역을 알려주세요.
4. 정기후원으로 선물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선물 번호:	금액: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정기후원 <input type="checkbox"/> 비정기후원 <input type="checkbox"/>
생년월일:	은행 및 계좌:	출금일: <input type="checkbox"/> 5일 혹은 <input type="checkbox"/> 25일

작성하신 후에 사진으로 전송해주세요(전화: 010-7548-3171)



**OpenDoors**

Serving persecuted Christians worldwide